



●● 심터의 장

마음의 촛불 _ 긍정의 결과는 긍정
고 사 성 어 _ 중련도해[仲連蹈海]
한 권 의 책 _ 쏘주 한 잔 합시다
영 화 이 야 기 _ ① 벤데타 ② 게이샤의 추억
연 극 공 연 _ 우동 한 그릇
바둑묘수풀이 _ 귀의 白을 살리는 급소의 한 수
등 산 안 내 _ 태백산
골 프 안 내 _ 스윙의 기본



마음의 촛불

긍정의 결과는 긍정

주어진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한없이 깊은 배포와 긍정적인 자세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

말이란 마치 피어싱을 하는 것처럼 코든 귀든 배꼽이든 어디든 걸릴 수 있다. 때문에 무심코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선시대에 한 유생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나무 밑에 걸터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방향에서 오던 한 유생이 숨을 고르기 위해 나무 밑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유생이 땀을 닦으며 나무 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앉게 된 세 사람의 유생들은 과거를 보러 간다는 공통된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유생이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자 나머지 두 명도 며칠 전에 꿈을 꾸었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꿈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고, 그들은 차례대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였다.

첫 번째 유생이 말했다.

“글쎄, 꿈에 거울이 쨍그랑 하고 소리를 내면서 깨졌지 뭐요. 이거 참 불길해서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나……!”

두 번째 유생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방안에 누워 있는데 방문 꼭대기에 흉물스럽게도 허수아비가 대롱대롱 매달려서는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소? 어찌나 불길하던지…….”

걱정스런 표정으로 세 번째 유생이 입을 열었다.

“내 꿈은…… 아름답리 큰 나무에 꽃들이 만발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휩 불더니 그 꽃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처럼 불길한 꿈이 어디 있겠소이까? 확실히 떨어지는 꿈이 아니고 뭐겠소!”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유생들은 꿈 때문에 큰 시름에 잠겨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유생이 이렇게 제안하자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해몽가를 한 번 찾아가 봅시다. 떨어지는 꿈이라고 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겠소? 떨어질 것이 뻔한데 한양까지 가서 뭐하겠소.”

그들은 물어 물어 해몽가의 집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해몽가는 외출 중이었다. 유생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서려는데 해몽가의 아들이 그들을 붙잡으며 말을 했다.

“제가 아직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버님께 배워 조금은 해몽을 할 줄 압니다. 제가 한 번 해몽을 해드려도 될는지요?”



세 명의 유생들은 헛걸음을 치는 것보다 그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해몽가의 아들은 깍듯하게 예의를 차려 세 명의 유생들이 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 죄송합니다만, 세 분의 꿈 모두가 낙방하는 꿈입니다. 일찌 감치 잡고 다음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꿈이 너무 사나워서 원……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겠습니다.”

유생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심정으로 그 집을 나서려다가 이제 막 외출에서 돌아오던 해몽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웬 손님들이냐?”

해몽가가 아들을 향해 묻자, 아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러자 해몽가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 세 명의 유생들에게는 앉으라고 권하고 ‘실례를 범해서 죄송하다’는 예를 올리며 다시 해몽을 해드리겠노라고 말했다. 유생들은 어안이 병병했지만 해몽가가 하라는 대로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세 명의 꿈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해몽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후에 조용히 입을 떼기 시작했다.

“거울이 깨짐 꿈 말입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되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꿈을 꾸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을 하시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유생에게는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다.

“허수아비가 방문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카…… 이것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실 꿈입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반드시 이번 과거를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꿈은 나무에서 꽃들이 우수수 떨어진 꿈인데, 꽃들이 죄다 떨어졌으니 이제 열매를 맺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을 이제야 찾으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올시다.”

새롭게 꿈 해몽을 받은 유생들은 얼굴이 활짝 피어올라 신이 나서 한양으로 향했다.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그들은 결국 좋은 점수로 모두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만약 해몽가의 해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혹 “좋게 이야기하면 입초사야. 괜히 잘될 거라고 왜 떠들어 재수 없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의 결과는 긍정일 수밖에 없다.

입시를 앞두고 어떤 학생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책상 위의 연필이 대굴대굴 굴러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만약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불길하고 기분 나쁜 꿈으로 생각했겠지만, 그 학생은 달랐다.

“아하, 연필이 마루에 붙었네.”

주어진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한없이 깊은 배포와 긍정적인 자세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

말이란 하기 나름이며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각 인력과 견인력 그리고 성취력이 발동되어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편견과 징크스를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결단력과 창의적인 소견이 필요하다.

불멸의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생전에 그의 집에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온갖 사연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가 예언가였으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다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노스트라다무스는 확신에 가득한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밑바닥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틀렸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연의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정성이 담긴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지금 정말로 바닥에 있다면 그곳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현정의 「성공하는 스피치, 돈버는 스피치」 중에서]



고사성어

중련도해[仲連蹈海]

무도한 세상이 된다면 바다에 들어가겠다고면서, 공로의 사례를 거절하고 은둔한 노중련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숙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노중련은 제나라 사람이다. 독특한 책락을 세우기를 좋아했지만 벼슬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나라를 여행할 때 마침 진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고, 위나라는 신원연을 사신으로 보내 진나라 소왕을 천자로 섬기도록 조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중련은 조나라 왕의 아우인 평원군 조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위나라 손님인 신원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따져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평원군은 그를 신원연에게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었다. 신원연은 노중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포위 당한 성 안의 사람들을 살펴보니 모두 평원군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옥 같은 얼굴을 보니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오랫동안 포위 당한 이 성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노중련은 말했다.

“세상에서는 주나라 때의 은둔자인 포초를 속이 좁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그가 자기 한 몸을 위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적의 머리를 베는 공로를 최고로 치는 나라입니다. 또 인재들을 속여서 이용하고,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 진나라 소왕이 천자가 된다면 나는 동해로 들어가 죽겠습니다. 차마 폭군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원연은 감히 두 번 다시 진나라를 천자국으로 삼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평원군은 그에게 땅을 주고 봉호를 주고자 했지만, 그대로 사양하고 떠나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포초(鮑焦)

는 주나라 때의 은둔지사로서, 자공이 포초를 비난하면서 “정치를 비난하는 자는 그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래도 좋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포초는 “청렴한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무겁게 여기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피하여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한 뒤 나무를 안은 채 죽었다.

여기서 포초는 더러운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다.

또한 제나라의 전단이 연나라의 요성을 공격할 때 요성이 다수의 희생자를 내면서 항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중련이 설득하는 글을 적어 성 안으로 화살에 매어 쏘아 넣었다.

그 결과 연나라 장수는 자살하고 요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사기>에 실려 있다.

이 경우에도 벼슬을 주려고 한 제나라에 대해서 바다로 도망가며 “나는 부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세상을 알보면서 제 뜻을 마음대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뭉구」 중에서]





한권의 책

쏘주 한 잔 합시다

정말로 쏘주 한 잔 마시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소설과 다르게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 왜 술 마실 때보면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도 하지 않는가. 바다 얘기도 좋고, 문학에 대한 허울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좋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다가온다.

MBC 느낌표의 작가 유용주가 5년만에 산문집을 펴냈다. 밑바닥 삶을 부유하며 치열하게 살아내 삶의 구석구석을 건강한 문체와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낸 이번 산문집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상처 위에 돌아난 새 살처럼 유용주의 산문은 빛난다.

제1부 <오래된 사랑> 외 3편, 제2부 <아름다운 것은 독한 뱀이여>(17일간의 승선 일기), 제3부 <그 숲길에 관한 짧은 기억·2>, 제4부 <봄은 왔건만> 외 9편으로 총 16편의 산문을 만나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삶의 건강성과 치열함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인생은 항해라고 했는가? 저자는 두바이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이제부터 17일 동안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바다는 물방울이 모여 만든 커다란 집이다. 세상의 싹틔줄이 모여 만든 단단한 집이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인간은 태어나지만, 그 집에서 또한 죽는다.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 문패를 달 수 없는 모세혈관의 집,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순결한 집이다.”

한 배를 탔다는 인연보다 큰 인연이 있을까. 짧은 인생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운명을 나누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최악의 경우 생사를 같이 나누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배로 갈아타고 헤어지겠지만, 더 크게는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 지구라는 큰 배를 떠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망망대해 바다에 왔을까?

바다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은 핑계인지 모른다. 나는

나를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중간 점검하는 셈치고 커다란 거울에 전신을 한 번 비추어보고 싶었다. 피하지 않고 똑똑히 마주보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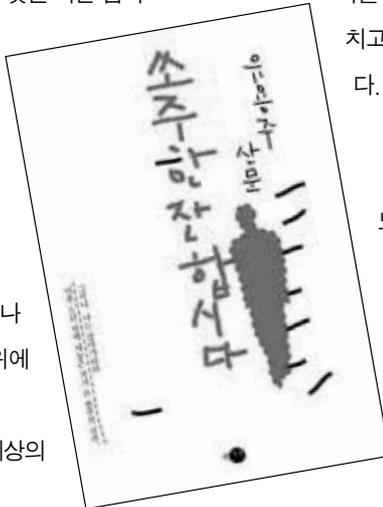
여기 와보니 내가 너털너털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 온통 헤진 투성이다. 께맨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다. 험 몸 험 마음 하나가 가없게도 바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수술 좀 해달라고, 깨끗이 지워달라고.

그렇다. 저자가 바다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 것이다. 세파에

찌들고 할퀴고 상처난 몸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바다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보고자 함이요, 미래의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승선 일기(제2부)는 우리들의 인생 항해일기나 다름없게 읽힌다. 과연 난바다 위에 떠 있는 나라는 뗏목은 어떻게 될까? 글썄, 그것은 바로 선장의 몫이다.

[저자 : 유용주, 출판사 : 큰나(구)백년글사랑(구)마주한]





영화 이야기

벤데타 Vendetta

1890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부두 사업을 벌이던 이태리 이민자들과 시민들의 대립을 그린 실화극.

가스파레 가족은 기아를 피해 이태리 시실리를 떠나 일자리가 부딪힌다.
기다리는 기회의 땅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주한다.

자신들의 성공을 꿈꾸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부푼 기대를 안고 배에 오른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뉴올리언스는 점점 수가 늘어나는 이태리인들을 <데이고>라고 부르면서 사사건건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편견의 땅이었다.

이태리인 사업가 마케카의 부두 사업을 탐내던 미국인 휴스턴은 뉴올리언스 시장을 부추겨서 마케카의 기업을 빼앗으려 하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헤네시 시경국장의 반대에



어느 안개 낀 밤, 법 집행자로서 시민들 사이에 덕망을 쌓았던 헤네시 국장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시장은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마케카와 가스파레 부자 등 이태리 이민자들을 범인으로 내몬다.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들이 평소의 감정을 내세워 이태리 인들에 대해 불리한 날조 목격담을 늘어놓지만 마케카의 변호사인 쉘스의 설득력 있는 변론에 배심원들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화 이야기

게이샤의 추억

숨막히도록 매혹적인 세기의 사랑

스티븐 스피버그가 오랜 시간 품었던 프로젝트 <게이샤의 추억>이 결국 다른 이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원작 소설의 출판 단계부터 눈독을 들였다고 하니 스피버그가 이 작품에 기울인 애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만하다. 마치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고르

듯 까다로웠을 그의 시험을 통과한 이가 바로 <시카고>의 롬 마셜이다.

그리고 보면, 그 자신이 뮤지컬 배우이자 안무가였고, 비범한 데뷔작 <시카고>로 할리우드에 매끄럽게 안착한 롬 마셜이야 말



로 게이샤의 가무와 풍류를 스크린에 펼쳐낼 수 있는 진정한 내공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다.

롭 마셜이 진두지휘하는 <게이샤의 추억>은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작품이 될 전망이다.

가난한 소녀가 일본 최고의 게이샤로 거듭나기까지의 수십

년 세월을 배경으로, 그녀의 출세기와 애정사를 펼쳐가면서, 게이샤의 가무와 복식 등 일본 전통 예술도 재현할 요량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LA 근교에 <작은 일본>이라 불릴 세트를 지어 1920년대 일본의 시대상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담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미술과 음악과 안무보다 더 기대가 실리는 쪽은 아시아 최강이랄 수 있는 화려한 배우 진용이다. 최근 아시아 최고의 거장들을 오가며 서구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쯔이가 신비로운 희색 눈동자의 게이샤 사유리로 출연하고, 양자경이 그의 스승격인 마메하로, 공리가 그의 재능과 젊음을 질투하는 하츠모모로 분한다.

주요 여성 캐릭터를 일본 밖의 배우들에게 양보한 대신 비중 있는 남성 역할은 일본의 상징적인 배우들인 와타나베 겐과 야쿠쇼 고지가 맡아 연기했다.

<킬 빌>, <라스트 사무라이>에 이어 일본과 사랑에 빠진 할리우드의 어떤 경향을 <게이샤의 추억>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29년 일본의 작은 어촌, 누구나 한눈에 반할 만큼 매력적인 청회색빛 눈동자를 가진 아홉 살 소녀 치요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난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언니 사츠와 함께 교토로 팔려가게 된다.

휘황찬란한 수도의 풍경에 압도된 것도 잠시, 한껏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언니와 헤어진 치요에게 노예처럼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회장의 남모를 후원으로 교토 최고의 게이샤 마메하에게 본격적인 게이샤 수업을 받게된 치요는 <사유리>란 이름과 함께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난다.

화장, 노래, 연주, 춤, 예절 등 게이샤의 전통적인 기술과 아름다움을 전수 받으며 최고의 게이샤로 성장하는 사유리.

그때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게이샤 하츠모모의 질투 속에서 회장에 대한 감정을 숨기며 기업가 노부를 비롯한 많은 남성들의 구애를 거절하던 사유리의 사랑은 2차 대전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혹독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연극공연

우동 한 그릇

■ 기획의도

1. 우동 한 그릇, 9차 공연은 좀 더 새로운 컨셉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8차 공연에 이르는 동안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우동 한 그릇>이 2005년 12월 6일부터 9차 연장공연을 하게 되었다.

지난 6차 공연부터 리얼리즘 스타일의 새로운 버전으로 재포장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9차 공연에는 그동안 계속 되어왔던 읽어주기 컨셉을 유지하면서 직접 책을 읽어주는 해설자의 배역이 추가되어 더욱 재미있는 작품 진행과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한국 최초의 실험적 형식, 소설 보여주기

<우동 한 그릇>은 연극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혁신적 공연 양식을 도입하였다. 지문과 대사로 이루어진 기존의 희곡문법을 거부한 채 한국 최초로 소설 원문 그대로 공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런 형식의 공연은 지난 2002년 내 한했던 러시아 극단 <모스크바 청년극장>의 <검은 수사(안톤 체홉 소설)> 공연을 통하여 체험을 한 바 있다.

소설과 연극을 기묘하게 혼성 교배시킨 이러한 혼합장르(Interdisciplinary) 형태의 공연양식은 Cross over의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21세기의 트렌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순혈(純血) 주의를 적응력과 자생력이 약화되어 멸종되고 만다

는 생물학적 현상이 예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끝없는 잡종적(hybrid) 변신을 통하여 종(種)다양성을 추구해야만 한다.

■ 작품 소개

①1억 2천만의 눈물

일본에서 1987년 5월, 이 동화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화젯거리가 되지 않았다. 원래 이 이야기는 동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구릿고노 가이>라는 구전동화 모임의 통신 판매망과 강연장의 직판 형태로 보급되어 왔기 때문에 몇몇 동호인 사이에서만 알려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1년 뒤 FM 도쿄 제작의 연말 프로그램 <가는 해 오는 해>에서 이 동화가 전문 낭독되고, 산케이신문의 사회면 머릿기사로 알려지면서

부터 뒤늦게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방송국에는 1천 통이 넘는 청취자의 투고가 몰려들어 재방송을 했고, 국회에서는 질문대에 오른 공명당 의원 한 사람(오쿠보 나오히코)이 15분 가량 이 <한 그릇 메밀국수>를 낭독하여 시끄러웠던 장내가 숙연해지면서, 이윽고 각료석에 앉아 있던 총무처 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드디어 이 동화는 구리 료헤이 작품집 속에 수록되어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 일약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게 되고, <주간 문춘>이 '편집부원도 울었다'는 선전 문구를 달고 전문을 게재했다.



그러자 전 일본열도가 눈물로 침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이야기를 읽고 울지 않고 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차 속에서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정말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한 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는 말들이 신문 잡지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나도 울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하여 일본의 저명 인사들이 총동원되어 눈물 흘리기 콘테스트 특집이 등장하기도 했다.

할자만이 아니라 후지 텔레비전 같은 방송국에서는 이 동화를 무려 닷새 동안이나 낭독자를 달리해 가면서 되풀이 방송,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실황 중계하기도 했다.

게스트로 나온 연예인들의 우는 얼굴을 비롯하여 시내의 각 초등학교와 사친회를 찾아다니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눈물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공개했다.

일본인들이 잘 쓰는 말로 하자면 <1억 총눈물>의 바다가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감동에서 끝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경시청에서는 이 <한 그릇 메밀국수>를 복사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우선 이 동화를 읽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이 순수해진 그 순간을 틈타서 자백을 시키라는 아이디어였다.

②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운 사람들

만약 울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는 일본인이 아니다. 총 1억이 울어야 한다. 남들이 다 우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라하치부(마을에서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가 된다.

<다모리>라는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은 방송중 이 동화를 비꼬는 말을 했다. 우리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좀 지나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로부터 항의 편지가 쇄도하고, 결국 다모리는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강연회를 갖기에 이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소바 증후군> 또는 <가케소바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동화 속에서는 2번 테이블의 신화가 생겨났듯이, 현실 속에서

도 그와 똑같은 <한 그릇 메밀국수>의 신화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 작품 줄거리

한 그릇의 우동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세 모자, 추억의 우동집인 <북해정>에 다시 찾아온다.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집은 해마다 12월 마지막날이 되면 손님들로 북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그곳에 남루한 차림의 세 모자가 들어와서 단 한 그릇의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간다. 그 후에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세 모자는 <북해정>을 찾고, 다정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다음 해 12월 마지막날, 주인은 우동을 먹으러 올 세 모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북해정>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모자를 기다리는 주인은 그들의 자리를 언제나 비워뒀고, 이러한 사연은 단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저 추억으로 세 모자에 대한 기억이 남겨질 무렵, 그들은 다시 우동집에 나타난다. 두 아들은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는 제법 말쑥해진 모습으로…….

이제 그들은 한 그릇의 우동이 아닌, 따뜻한 세 그릇의 우동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이 베풀어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게 <북해정>의 선달 그림은 훈훈함으로 젖어간다.

∴ 공연안내

△공연기간 : 2005년 12월 20일(화)~2006년 2월 28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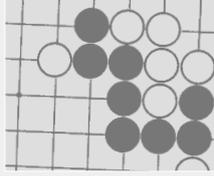
△공연장소 :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2관

△공연시간 : 평일 7시 30분 / 토·일·공휴일 - 16시, 19시 / 월(쉼)

△제작 : 극단 김동수 컴퍼니 기획실

△후원 : (사)한국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

△문의 : 극단 김동수 컴퍼니 02-3675-4675



바둑모수 풀이

귀의 白을 살리는 급소의 한 수 (욕심 내지 말고 최소한으로 산다)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욕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꼴을 면치 못한다.

[문제]

白선. 白의 변칙적인 걸침에서 발생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白이 살 수 있게 되는데, 욕심을 내면 의외로 까다로운 변화가 생긴다.

[정답도]

白1로 젖힌 다음, 3에 호구치는 수로 살 수 있다. 黑4에 두어도 白5면 완전한 두 집이 난다.

[실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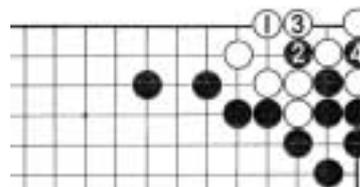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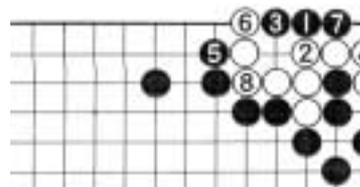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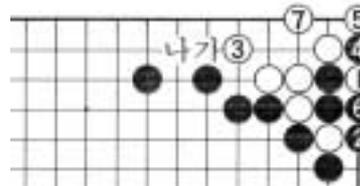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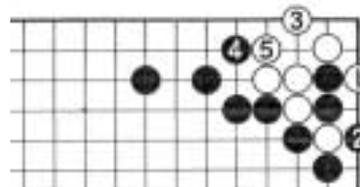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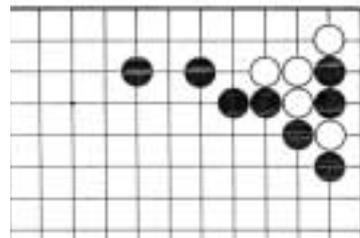
白1 뒤에 3을 두어 집을 넓히는 수는 黑4, 6으로 먹여 치고 막아 패가 된다. 이 다음 白가로 나와 보았자 黑나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고 1도]

실패도의 白4로 본도 黑1에 두는 것은 白2 이하 8까지 빅이 된다.

[참고 2도]

실패도의 白7로서 본도의 白에 둔 경우는 黑2에 끊은 다음 4로 패를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냥 黑4에 두면 白2로 살게 된다.





등산 안내 태백산

눈꽃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산행이 눈이 내리면 활기를 띤다. 설원의 장쾌함과 눈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겨울산행은 등산의 백미로 불린다. 탁 트인 시야에 묵은 체증 내릴 듯 겨울산은 황홀하며 색다른 낭만과 스릴을 제공한다.



태백산(1567m)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이다. 태백산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산이라면 그것이 어떤 산이든 일단 민족의 영산이라 할 수 있다. 백두산이 그렇고 태백산이 그렇다. 태백산맥은 태백산에 유래한다.

〈동국여지승람〉에 태백산은 신라의 오악 중 하나인 북악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산이라고 기록되어 일찍부터 명산으로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의 상징인 태백산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청옥·두타산을 거쳐 흘러온 맥이 한번 웅장하게 융트림한 산이다.

금강, 설악, 오대, 두타산이 대부분 기암괴봉으로 이루어졌거나 깊은 협곡을 거느려 명산에 걸맞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백산은 그 이름이 연상시키듯 크고 거대한 능선과 봉우리로 이

루어진 육산일 뿐 아기자기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산이다.

함백산이나 정암사로 빠지는 고개에서 태백산을 바라보면 거대한 활 등 모양으로 휘어진 평탄하다고 해도 좋을만한 둔중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상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덩어리만으로 다가온다.

스카이라인이 주는 장쾌한 느낌은 태백산산행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태백산 주능선을 이루는 문수봉-장군봉 능선의 높이는 1500m 안팎으로 높낮이가 심하지 않다.

백두대간은 태백산 주봉을 지나 부쇠봉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가는데, 부쇠봉에서 약 6km 가까이 떨어진 장바위고개까지도 해발 1200m 이상의 능선이 유지된다. 태백산은 현재 강원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백시가 형성되면서 태백산은 태백시의 산이 되다시피 되어 있다. 일요일이 되면 가장 일반적인 산행코스인 당골 → 문수봉 → 천제단, 당골 → 천제단 코스는 태백시민들로 붐빈다.

당골에서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름철엔 질푸른 낙엽송 숲길이 시원한 녹음으로 맞아주어 상쾌한 인상이 오래 남는다.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는 울창한 숲 속의 넓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물소리가 들리고 곧 개울을 만나게 된다.

맑은 편 급경사를 오른 뒤 능선에 오면 경사는 완만해지고 산행을시작한지 1시간을 넘으면서부터는 간혹 전 나무와 주목이 활엽수 숲 사이에 드문 드문 서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태백산의 주목은 그 모양이 어느 산보다도 다양하고 기품 있게 생겼다. 상상을 훨씬 넘는 기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의 줄기 속에서 확보하는 방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목은 오대산 높이와 비슷한 태백산의 고산으로서 풍모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요소이다. 태백산엔 아름다운 주목이 어느 산보다도 많은 산이다.

특히 주목은 정상능선에 초속 10여m의 강풍에 설연이 날리고, 1미터가 넘는 적설에 작은 나무들이 파묻히고,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엄동설한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무거운 빙화를 주렁주렁 달고 눈과 얼음에 뒤범벅이 된 채, 더러는 작은 눈 피라미드처럼 설원 여기저기에 서있는 모양을 역광으로 보면, 그것은 환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문수봉이 가까워지면 남쪽으로 낮은 바위전망대가 나타나곤 하는데, 전망대에 서서 남동쪽으로 바라보면 동해안을 따라 뻗어가는 태백산맥을 배경으로 작은 월악산처럼 생긴 달바위봉이 보인다.

능선을 조금 가다보면 정상 너덜지대가 나타난다. 너덜지대의

가장 높은 곳이 정상(1517m)이다. 지금은 정상에 돌탑이 세워져 있다.

문수봉에서는 가까이는 천제단이 있는 영봉(1560m)과 그 아래 망경사가 보인다.

영봉으로 가는 길목에는 백두대간상의 중요 봉우리인 부쇠봉(1546m)이 지호지간이다.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에서 분기되어 나가는 봉우리가 부쇠봉이다.

북쪽으로 아련한 이내속에 거봉 함백산(1577m)이 솟아있다.

백두대간은 천제단의 영봉에서 남동으로 휘어져 방향을 튼 곳인 부쇠봉(약 7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연맥의 끝에 치솟은 소백산(1450m)도 보이고 월악산도 보인다.

당골로 들어가 문수봉 → 부쇠봉 → 천제단 → 장군봉 → 망경사 → 반재 → 당골 코스를 산행으로 잡는다.

문수봉 주위는 너덜지대 아래로 고사목이며, 소나무 숲이 에워싸고 있다. 당골 광장에서 문수봉까지 1시간 40여 분이면 올 수 있다. 문수봉에서 부쇠봉까지는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산길이다.

부쇠봉에는 널따란 초지가 있다. 대개는 문수봉에서 영봉 → 장군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초지는 길 흔적조차 희미하다. 백두대간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드물게 사용하는 길이다.

6월이면 온갖 풀꽃들이 무성한 초원은 정갈한 녹색의 호수 위에 떠있는 꽃들의 축제를 연다.

영봉으로 가는 길 역시 평탄하다. 급경사가 시작되는 곳에 작은 천제단이 하나 보인다. 장군봉과 영봉의 천제단이 봉우리에 있는데 비해 이 단은 영봉의 비탈 아래 평탄한 능선이 시작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천제단은 장군봉에서 시작 모두 3개가 되는 셈이다.



작은 천제단에 이르기 전 동쪽 사면에 특색 있게 생긴 주목들이 하나씩 보인다.

태백산은 육산이다. 웅장하고 호방한 능선이 있지만 보기에 따라선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산일 수도 있다. 계곡은 옥동천 계곡이 불만하지만 정작 태백산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봉화군 석포면 쪽은 접근로가 너무 멀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기암괴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불동이나 백담골 같은 아름다운 계곡도 없다.

그러나 태백산엔 천제단이 있고 주목이 있다. 그리고 황량하지만 놓칠 수 없는 겨울풍경은 거대한 산자락과 맛있는 능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광활함과 겨울정취가 풍겨주는 고독한 멋과 도전적인 풍취를 지닌다.

문수봉에서 → 천제단까지 1시간, 천제단에서 장군봉까지 왕복 20분, 망경사 → 반재 → 당골 광장까지 1시간 30분, 쉬는 시간을 계산해도 5시간 안팎이면 산행을 끝낼 수 있다.

코스상 주의할 점은 백단사, 당골 광장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망경사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봉인 장군봉에서 이쪽으로 하산하려면 영봉을 거쳐 망경사로 내려와야 한다.

장군봉에서는 유일사로 내려가 큰길로 빠지는데 그곳은 화방재 아래쪽이다. 망경사로 내려가다 보면 단종비각이 있다.

단종 비각에서 망경사쪽으로 조금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

맛이 좋은 곳 중의 하나라는 용천이 있다.

망경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문수봉과 그 아래 당골 광장 쪽의 뛰어난 조망을 즐길 수가 있다. 내려오는 길은 급경사도 있으나 반재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며 당골에 가까워질수록 계곡미가 빼어난 계류가 있다.

계곡 왼쪽은 장군바위를 비롯한 암봉과 암벽이 계류를 따라 한 동안 계속되어 육산으로 자리 매김 된 태백산의 전혀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암봉이나 높다란 암벽 위와 중간에는 소나무가 자리잡고 서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가지를 흔들고 있어서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태백산의 산제당골 → 문수봉 코스는 급경사가 거의 없어 산행이 순조롭고 주름에 올라서기 전 주목이 간간히 보여 눈을 즐겁게 해준다.

■ 눈 축제

해마다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태백산의 설경(雪景)과 주목 군락(群落) 등 웅장한 태백산을 배경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강원도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겨울철 관광축제는이다. 1995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1월말에 약 9일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장소는 태백산도립공원과 태백시 일원이며, 눈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설 이벤트인 국제 눈 조각품 전시회, 눈사람 페스티벌, 눈 터널, 눈으로 만든 그리스신전, 설원에서 만나는 사계(四季) 외에 태백산 등산대회, 오궁썰매타기, 설상 미니 축구대회, 개썰매 타기, 전통 민속공연, 겨울 놀이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보통 눈 축제 가장행렬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특히 썰매 착용 모습이 오리 궁둥이를 닮아 <오궁썰매>로 이름 붙인 오궁썰매타기는 태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기한 놀이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밖에 외발썰매·얇은뱅이썰매, 팽이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각종 겨울놀이가 준비되어 있고, 국제 눈 조각 전시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유명 눈 조각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눈 축제와 관련해 동양 최대의 태백석탄박물관, 용연굴(龍淵窟), 태백 구문소의 고환경(古環境) 및 침식지형(浸蝕地形), 낙동강(洛東江)의 발원지인 황지(黃池), 한강(漢江)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산행코스

1. 당골 코스는 석탄박물관과 주차장이 되어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단군성전이 있는 곳이며 반재에서 (갈림길) 문수봉을 거쳐 천제단 정상. 또는 망경사 방향 좌회전 정상으로 갈 수 있다.

△당골 → 반재 → 문수봉 → 천제단 <2시간 30분 소요>

△당골 → 반재 → 망경사 → 천제단 <2시간 소요>

2. 백단사 코스는 함태초등학교 혈동분교가 있는 정기리에서 (소도동에서 영월 방향 차량 10분 거리) 백단사를 오르는 코스다. 1시간이면 반재에 오르고 산행2시간이면 정상에 오른다.

△정기리 → 백단사 입구 → 반재 → 망경사 → 천제단 <2시간 소요>

정상 부근에는 조선조 비운의 왕 단종의 비각이 세워져 있고 주목군락지가 있다.

하산 길에는 태백시에서 세운 석탄박물관이 있다. 꼭 한번 둘러볼만 한 곳으로 우리의 옛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이곳 태백탄광에서 힘들게 노력하며 오늘을 일궈냈던 어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다. 자녀와 함께라면 더욱 좋다.



골프

스윙의 기본 ③

날카로운 헤드의 스윙이 요구되는 스퀘어 그립

최근들어 골프 애호가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골프가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골프기술의 향상과 골프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스윙의 기본부터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 어프로치 샷, 벙커 샷, 퍼팅, 트러블로부터의 탈출법, 나이스 샷, 등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왜 프로 골퍼는 스퀘어 그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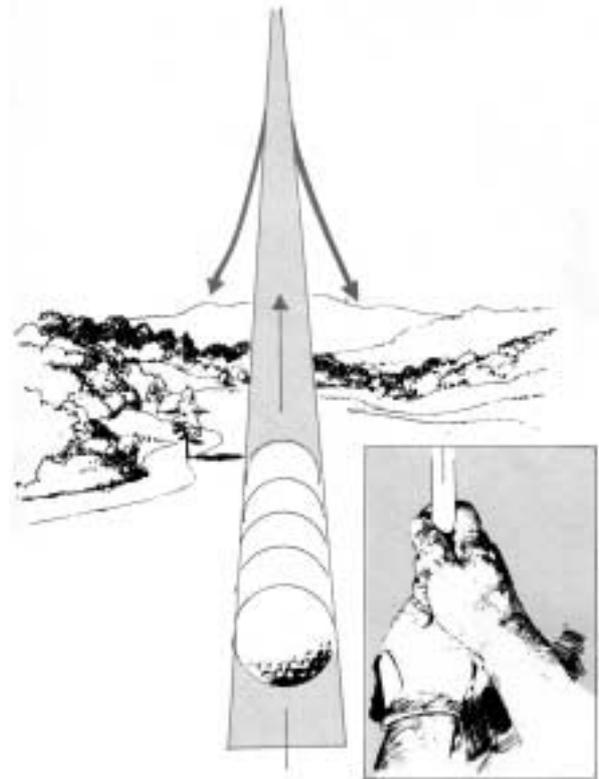
프로 골퍼의 대부분은 왼손 엄지손가락을 샤프트의 센터까지 곧장 겹치는 스퀘어 그립이다.

프로 골퍼에 이 스퀘어 그립이 많은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좌우를 향한 가려 치기이다. 프로골퍼는 갖가지 상황에 따라서 볼을 좌우로 가려서 쳐내지 않으면 안된다. 페이드 볼 혹은 드로우볼 등이 그렇다. 좌우로 가려서 치기 위해서는 좌우 어느 쪽에도 편향하지 않는 그립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본래 왼손을 약간 겹치는 듯이 잡는 편이 왼손을 세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강한 임팩트를 얻을 수 있다. 프로 골퍼에 스퀘어 그립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왼손을 겹치면 볼에 후크가 걸려서 왼쪽으로 굽어지는 미스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프로 골퍼는 스퀘어로 잡더라도 임팩트의 순간에는 클럽헤드를 똑바로 되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럽헤드의 스윙에 스피드가 있고 날카롭게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왼손을 겹치게 되면 후크 볼이 나오기 쉬워지는 것이다.

일반 골퍼라도 헤드의 스윙에 상당한 스피드가 있고 손목이 강하다면 스퀘어 그립으로도 곧장 나가는 볼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좌우로 가려서 치는 데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편향하지 않는 스퀘어 그립이 알맞다.

오른손으로 서둘러 치기 쉬운 스퀘어 그립

그러나 스퀘어 그립의 경우 헤드가 근소하게 낮어져도 페이스가 벌어져 볼은 슬라이스 되기 일쑤이다.

그 때문에 스퀘어 그립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헤드를 트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오른손으로 서둘러서 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빨리 헤드를 되돌리려고 하면 허리가 당겨져서 컷치기가 되고 만다.

스퀘어 그립이라도 스윙을 당기는 것은 왼쪽 사이드이다. 왼쪽의 리드로 풀스윙을 하더라도 헤드를 낮추지 않고 쳐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퀘어 그립으로 볼을 치는 골퍼에게 가해진 필수조건이다.



스트롱 그립 잡는 법

왼손의 V자 가락을 가리키는 스퀘어 그립

스트롱 그립은 왼손 인지의 제2관절에서 새끼손가락 밑동 부분에 클럽을 대고 잡았다. 다시 말해 스트롱 그립은 손가락이 주체이다. 그런데 스퀘어 그립은 스트롱 그립의 위치보다 손바닥 쪽으로 클럽을 대고 잡는다.

스퀘어 그립의 좌우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엄지와 인지의 V자는 스트롱 그립보다도 왼쪽을 가리켰다. 스트롱 그립의 V자는 좌우의 손이 모두 오른쪽 어깨, 스퀘어 그립에서는 왼손이 턱, 오른손도 오른쪽 어깨보다 어느 정도 턱에 가까운 쪽에 위치했다.

스트롱 그립은 왼손을 겹치고 오른손을 편 만큼 클럽을 왼쪽으로 트는 움직임의 폭이 커진다.

소바닥으로 잡고 좌우의 손을 그립의 중앙에 겹쳐서 자세를 취하는 스퀘어 그립은 스트롱 그립에 비하여 왼쪽으로 트는 진폭이 작은 만큼 클럽을 날카롭게 쳐내야만 하는 것이다.



스퀘어 그립 잡는 법